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나명옥 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

제가 드디어, 이번 주에 나갑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한 주일 동안 보고 싶었다고 인사를 나눕니다. 새로 들어온 친구는 약간 서먹하다가도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반갑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반가워하며 쉽게 친해지며, 결국, 마음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을 텐데도 이러이러한 사고를 쳐서 들어오게 됐다고 서슴지 않고 곧잘 얘기해줍니다. 면담이 나 고백성사를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의외로 단순하고 착한데 어찌다가 이런 곳에 들어와서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구속 당하게 됐을까 의아한 마음입니다.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느라,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눈이 가려서, 그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가족이나 어른이 없어서 들어오기도 한다는 말을 들을 땐 마음 한쪽이 먹먹합니다.

가끔 한 번 나간 친구들을 또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반가워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가움이 더 먼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반기고 아는 체하는 모습이 천진한 어린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큰소리로, 안녕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 봉사자 선생님! 이라고 외치며, 노래 부르는 것도, 프로그램에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마냥 사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합니다. 퇴원 후 이들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줄 든든한 친구들이, 가족이, 어른들이 함께해 준다면 그나마 힘겨워도 잘 버틸 수 있을 텐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켓바퀴 돌아가듯 비슷한 환경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며 어찌하지 못하고 흔들릴 거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나갑니다.”, “다음 달이면 나갑니다.”라며 얼마나 기쁘고 설렘이 가득해서 얘기해주는지 그때마다 “이번에는 잘 살으레이. 여기서 다시 보면 안 되는 거 알지?”라고 격려와 함께 기뻐하면서 등을 토닥여 줍니다. 그러면 그들도 힘차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은 군대보다 더 우렁찬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번 강복과 함께 작별의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맡겨 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



10월 27일(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용자 가족의 자녀를 기억하는 미사에서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자녀들은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견뎌야 한다. 수용자의 자녀는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자녀’이다.”라며 “무심코 적은 댓글 하나를 수용자의 자녀들이 어디선가 보고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상처와 아픔 속에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용자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 하셨습니다.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서울남부교도소 참관



11월 3일(목)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중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 교육이 교정시설 참관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정시설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될 교정시설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안정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관에 도움을 주신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치3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10월 29일(토)~30일(일) 대치3성당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종현 요셉 부위원장 신부,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대치3성당 주임 신부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광탄 나자렛 모원 사형수 위령 미사



11월 7일(월) 광탄 나자렛모원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종현 요셉 부위원장 신부는 “사형은 정의 실현이 아니며, 오히려 복수를 부추긴다.”라며 “하느님께서는 카인, 아담, 모세, 베드로, 바오로에게도 돌아오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사회를 변화시켜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정사목에 봉사하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소한 행동

정예원 레지나_분류심사원 봉사자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답답함(스트레스)을 무엇으로 해소하시나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미디어 콘텐츠들은 많다 못해서 차고 넘치고, 실내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2020년 1월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에 몰아닥친 팬데믹 현상 때문 일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았던 감염병은 2022년인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잠잠해졌다가 다시 커지기를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저절로 지쳐만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분류심사원 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했던 일상이 멈춘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마음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친한 친구를 만나 사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마저 제한하니 지치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모든 활동이 제약받는 답답함을 어떻게든 없애야만 했습니다. 외부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집 안에서 풀면 될 일이었죠. 평소에는 읽고 싶어도 손이 가지 않았던 책들을 정독하게 되었고, 손을 조금 더 움직이면서 잡념을 몰아낼 수 있도록 똥손(?)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자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레진 공예에 몰두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성당에서 미사를 보지 못하니 매일 저녁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기도하면서 언제쯤 이 답답한 상황이 끝 날까요, 라고 주님께 작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스쳤던 건 바로 분류심사원에 있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지요.

돌이켜보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답답할 사람들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가족 or 봉사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과 더불어서 확진이 되어도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분들의 노력도 분명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소할 수 있는 행동마저도 제한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보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이 답답한 저 자신에 대해서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답답함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이들은,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힘조차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먼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거창한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가가 눈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며 혹은 들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정사목에 봉사하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니까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엘아자르 사제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엘아자르’는 히브리말로,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꾸면, 라자로가 됩니다.

엘아자르는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엘아자르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는 큰 참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겪었습니다. 우선, 형들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레위 10,2) 죽었다는 구절을 참고하면, 화재 사고인 듯한데,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레위 10,1) 모세는 이 사고의 피해자 가족인 아론과 엘아자르와 그 동생 이타마르에게 슬픔을 표현하지도 말라고 하고(“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레위 10,6)), 당시 제물이 타버린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레위 10,16). 사고의 피해자 가족임에도 마치 그들의 잘못으로 죽은 듯, 죄인의 가족이 되어버린 듯한 마음의 상처를 엘아자르는 받았을 것입니다.

엘아자르가 레위 족장의 어른이 된 이후(민수 3,32), 자신에게는 당숙이자, 레위 지파의 어른인 코라가 다른 공동체 수장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당신들은 너무 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민수 16,3) 결국 코라와 다른 두 주동자는 땅바닥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민수 16,31), 또 다른 250명도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민수 16,35). 대사제직을 둘러싼 아론의 후손과 다른 레위 자손의 갈등 과정 중 일어난 천재지변일 수 있습니다. 엘아자르는 이 화재의 원인이 된 향로를 퍼서 제단에 씌우게 되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심은 계속 흥흥하고, 계속된 재난으로 14,700명이 더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형제들의 죽음에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사제직을 물려받게 된 엘아자르인데, 그렇게 물려받는 직분에 대해서 자기 민족과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있으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직분에 대하여 아론 집안의 특별한 권위, 사제직과 레위인의 직무, 사제직의 몫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 구분하여 길게 기술한 것(민수 17,16-18,32)은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그만큼 엘아자르의 권위가 낮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죽고, 엘아자르가 대사제가 되었지만(민수 22, 25-28), 그의 존재감은 무척이나 적어 보입니다. 어떤 대재난이 일

어나 24,000명이 죽지만, 대사제 엘아자르는 어떤 목소리를 내지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피느하스가 이방인 여자와 또 그 여자와 결혼하려던 이스라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재앙은 그치고, 피느하스는 이 행동으로 사제직을 잇게 됩니다(민수 25,11-13).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지만, 아론을 잇는 두 번째 대사제로 모세와 함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의 분배 책임을 맡게 됩니다(민수 34,17). 땅의 분배가 분명히 예민한 문제임에도, 큰 소동 없이 마친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와 엘아자르는 현명하게 대처한 듯 싶습니다.

땅의 분배와 관련하여 유심히 보아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파들끼리의 분배에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도피성읍을 마련합니다(민수 35,9-34; 신명 4,41-43; 19,1-13; 여호 20,1-9).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 피의자가 재판 때까지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착지에 자신들의 땅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몰리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그 사람이 피해 있을 곳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부족 사회다 보니,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마을 전체가 피해자 가족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용의자는 너무 쉽게 피의자로 확정되어 피의 보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살인 용의자가 도피성읍으로 오면, 원로는 자초지종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이후 재판 결과 고의가 일어나게 되면 추방되지만, 사고일 경우에는 계속 도피성읍에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도피 성읍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 여러 부분 언급되어 있고, 심지어 시나이 산 계명에서도 하느님이 이미 말씀(탈출 21,12)하십니다. 어느 한 명의 생각만이라고 특정 지을 수 어렵습니다. 원시시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망사고가 많다보니, 추측만으로 피의 보복이 많이 일어나 생긴 자연스러운 풍습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한 사건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탈출 2,12).

어쩌면 새 땅을 배분하던 대사제 엘아자르의 역할도 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겪었던 큰 두 사건, 형 둘을 잃고, 많은 민족을 잃은 그 참사를 하느님의 복수로 인식했다면, 그는 엄격한 대사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민족을 살해하고, 큰 호응을 받으며 사제직을 잇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엘아자르는 어떤 말도 없던 것으로 보아, 그가 생각한 하느님은 배타와 배제의 엄격한 하느님은 아니었나봅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신을 뽑아 세우시고, 여러 어려움에서도 보호하시며, 가나안 정착의 수많은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도 열세인 민족을 아껴주시는 하느님으로 체험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도 이방인마저도 도피할 수 있는(민수 35,15), 도피성읍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타와 배제의 문화 속에서도 배려와 포용의 정신이 담겨있는 도피 성읍은, 내 편 아니면 적이 되는 요즘의 정치 문화, 흉악범은 다 죽여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에 기대어 형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중형주의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읽었던 저의 자아를 찾아 주시는 계기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모두가 고이 잠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책을 넘겨 보면서 지난 1주일의 창업 교육내용을 상기하여보다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에 염치를 무릅쓰고 못 쓰는 글이나마 펜을 들어 보았습니다

저의 무례함을 이해하시고 너그럽이 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을 수강한 000이라는 교육생입니다.

제가 구상한 사업을 처음에는 모두가 황당하고 허황하다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모두가 이권을 생각하고 모든 사업권을 저보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약은 피를 쓰면서 모든 사업권을 빼앗으려 들더군요. 그래서 처음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도 제가 구상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해주겠다며 선의로 접근을 해서 점점 깊이 깨닫고 이해를 하고 사업성을 계산하면서는 욕심이 발동해서 악의적으로 저를 함정에 몰아넣고는 급기야는 오늘의 결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욕심으로 인해 인간관계 및 사업관계 등 모두 다 잃고 실의에 빠져 4개월 남은 수용 생활의 시간만 보내고 있던 차에 창업 교육의 권유를 받고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에 시간을 내어 배움을 터득하고 이야기나 들어 보자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고 모르고 지나치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깨닫게 되고 실패의 원인과 새로운 방향에 있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힘 도전정신 이것이 인생의 원동력이고 또한 사람이 삶에 큰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감사함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못 쓰는 글씨로 거칠고 투박하고 문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지는 못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옵니다.

저는 본래 기계 공고를 졸업하고 졸업 후에는 현장 일선에서 기계와 전기를 접하다 보니 아름다움과 섬세함에 문장은 없으나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전기와 같이 살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팔라고 이용을 당했지만 모든 것이 다 제가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전기는 +, - 두 극과 두 선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기계의 에너지로 끝맺음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에 너무나무 정직한데 그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전기와 기계를 혹사하면서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폐기처분 하면서도 그동안의 모은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지요. 제가 그럴듯 생활에 이용당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반응하면 바로 약점을 잡아서 폐기하듯 지금과 같은 고초를 겪으면서 항상 이제 더는 누구도 믿지 않고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이를 악물고 원망만 하였습니다.

그랬던 저의 삶이 이제는 참으로 부끄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모든 원인은 제가 제공했고 그에 관한 결과도 제가 만든 작품인데 어찌 남의 탓만 먼저 했는지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반성 없이 남의 탓만 하다가는 오늘날의 나를 발견하고, 깊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끔 깨우침을 주신 것에 대해 많은 기쁨과 희망과 보람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의 교육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사업을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도 해보고 또한 인정받았고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새로이 도전하면 새 희망과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이 정직하게 도전하면 지금은 무일푼이지만 수많은 경험과 기계의 원리 제작 수리 등에 대한 단순한 논리만 남아 있고 금전과 경영, 상권 분석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겠지만 뒤늦게나마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새로이 도전할 힘의 원동력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를 얻게 되어서 감사함의 기쁨을 본부장님과 그에 수고해주신 교수님들 제가 지금 몸을 의지하고 있는 소에 수고해주신 교도관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것 같아서 거칠고 투박하면서 못 쓰는 글이지만 용기를 내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서신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잃었던 저의 자아를 찾아 주시는 계기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종교는 달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3일 새벽

OOO 드림

*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이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을 받고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3년 1월 2일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입금자 명의로만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위원회 통장에 기록된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자 정보 알림

1월 4일(수)까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이후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가능

1월 16일 이후,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편 수령은 별도 연락**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원주교구 엠마오농장 "히카마" 판매

* **히카마는 당뇨, 고지혈증, 장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 히카마 생과

- 5kg 29,000원 / 10kg 50,000원

• 당뇨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히카마 수제 조청

- 600g 1병 20,000원 / 600g 2병 40,000원

•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저나트륨 히카마 소금(신안 천일염)

- 250g 1병 6,000원

※ 택배비 별도

• 주문 문의: 010-9057-1268

• 계좌: 351-1240-5877-53 / 농협 / 황금정(엠마오농장)

● 행사 알림

• 9월 1일(목)~12월 1일(목)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14:00 (매주 목요일)

• 12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0:30

• 12월 15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0/14~11/17)

2022년 10월~11월에는 김계훈 사도요한, 김순덕 우슬라, 김하나 스텔라, 정현도 베네딕도, 대치3성당(53명)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신찬영, 대치3성당(2명)께서는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